



Reading korea, Feeling korea

주제국가로 초대받은 '한국의 출판물', 현지인들 뜨거운 관심

출판에도 '한류열풍' ... 2005타이베이국제도서전

"한국 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가 출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2005년 타이베이국제도서전에서 새삼 확인된 사실이다.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케이트웨이'나 '테스트마켓'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한국 드라마 재구성 출판물 인기 폭발

이를 증명하듯, 대만 마이티엔출판사의 부스 매대에는 소설 《대장금》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출판사 관계자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한 《대장금》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며 "한국 출판물 가운데 드라마를 소설로 재구성한 출판물이 현재 대만에서 인기절정"이라고 전했다. 마이티엔출판사가 판매한 《대장금》은 무려 30만 부. 케이블TV에서 재방영을 거듭하며 책의 인기도 계속되고 있다. 마이티엔출판사는 《대장금》 외에도 최인호의 《상도》, 요리책 《대장금 궁중보양음식》 등을 출간했으며, 오는 10월에는

한국 드라마 <영웅시대>의 소설을 출간할 계획이다.

또 다른 출판사 INK는 마이티엔출판사 《대장금》의 성공을 지켜 보다 재빨리 '은행나무아이들'의 《만화 대장금》 저작권을 사들였다. "소설 《대장금》의 인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드라마 <대장금>을 재미있게 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많이 구입한다"고 출판사 관계자는 전했다. INK는 《만화 대장금》 외에도 '문학동네어린이'의 《고양이 학교》, '샘터'의 《TV동화 행복한 세상》을 출간,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TV동화 행복한 세상》은 대만정부가 인성교육 교재로 활용할 것을 권고해 대만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얻고 있다.

- 출판제휴·저작권 상담도 눈에 띄게 늘어

이번 도서전에선 TV 드라마를 소설로 재구성한 출판물과 아동도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도서전에 맞춰 번역, 출간된 이문열 씨의 작품 《사람의 아들》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박완서 씨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이 현지 언론과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산 것도 그런 대목이다.

《사람의 아들》을 번역, 출간한 리엔징 출판사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번역, 출간한 다과이 출판사와 손을 잡고 작가와의 대화, 작가 사인회, 신서 발표회를 마련, 대만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문열 씨의 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작가 사인회에서 만난 저우쥘신(25·타이베이 정치대학 한국어학과) 씨는 “한국 대표작가의 작품이라 기대가 된다”며 “문학성을 가진 많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활발하게 소개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류열풍은 드라마 <대장금>의 한 장면을 메인 이미지로 꾸민 한국 관련 부스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에서도 잘 드러났다. 주제국가관을 비롯해, 대교출판, 두산동아, 문학과지성사, 예림당 등 17개 출판사가 참가한 한국관에는 대만 출판관계자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원화 일러스트로 부스를 꾸민 여원미디어는 대만 언론으로부터 연일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며, 참가 출판사 관계자들은 줄을 이은 저작권 계약 상담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등 출판한류의 체감 온도는 그야말로 뜨거웠다.

특히 주제국가관에서 상시 방영한 드라마 <대장금>은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으며, <대장금>의 한 장면이 담긴 1만여 장의 도서전 포스터는 며칠 못가 동이 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백운화상불조지심체요절> 등을 마련한 ‘한국출판역사전시’와 한국의 대표시인 10인의 시를 중국어로 번역 전시한 ‘한국명시전’도 주목을 받았다. 한편 주제국가관에는 2005 볼로냐 라가치상 한국출품작, 한국

역사, 한국문학, 각 출판사별 출판도서 등 모두 1,500여 종 2,000여 권의 도서를 전시, 한국의 다양한 책들을 소개했다.

● 깊이와 폭 갖춘 다양한 출판물로 지속적 수요 창출해야

은사마 열풍으로 정점에 들어서고 있는 일본의 한류와 달리 대만의 한류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대만의 한류는 그 기간이 오랜 만큼 다양한 문화코드로 대만 사람들의 생활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깊이와 폭을 갖춘, 다양한 스펙트럼의 출판물로 대만과 동남아권의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한류열풍으로 대표되는 ‘감성’에 의존하기보단, 국경을 넘어 공감을 일으킬만한 지적 소재로서 ‘한국의 책’들이 현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 한국 출판물에 대한 관심도 일시적인 ‘열풍’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게 뜻있는 이들의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서전을 통해 나타난 ‘한국의 것’에 대한 관심은 분명 의미 깊은 ‘가능성’이란 데에 많은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내 한 출판관계자는 “한국의 다양한 주제국가 프로그램은 그곳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중국 출판시장의 테스트마켓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전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대만 한류열풍을 출판으로 성공적으로 옮겨온 계기가 되었다”며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타이베이=글 사진 박용두 기자

▶ 한국관에서 가진 이문열 작가의 신서발표회. 《사람의 아들》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번역, 출간됐다.

▶▶ INK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한 《고양이 학교》와 《만화 대장금》

